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임미진 기자입니다.

중앙일보가 매년 실시하는 대학평가가 이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더 나은 대학상을 제시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학생 복지 정책'을 평가지표에 새롭게 포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여학생이 학생 사회에서 배려해야 할 '소수자'인가라는 물음부터

여학생 휴게실 등 여학생들만을 위한 시설, 제도 등이 역차별이라는 논란 등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로 대학 안에서 생활하는 여학생들의 의견을
지표 선정에 반영하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가지표는 세 가지입니다.

1. 여학생만을 위한 공간(휴게실, 여학생회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2. 교내 성폭력 예방, 대처를 위해 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거나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가?
3. 아이가 있는 학생들을 위해 탁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 3번 항목은 실시하는 대학이 거의 없어 지표로 쓰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만, 이것 역시
적합하다고 생각되면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다.

위 항목들에 대한 연대 총여학생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심각하게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실 필요는 없고, 평소에 생각해 오시던 것에 비추어
위의 항목이 지표에 적합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학생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 온 시설, 제도 등이 있다면
지표로 활용할 수 있으니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긴 이메일을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임미진

751-9493

011-9497-7939

lazymjin@joins.com

univ@joins.com(대학평가팀 공용)

중앙일보
대학평가팀
임미진

인정 부탁함.